

# 화본소설 <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

— 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高淑姬\*

## <目 次>

1. 들어가며
2. 스토리텔링, 그리고 화본소설과 TV드라마
3. <金玉奴棒打薄情郎>과 <아내의 유혹>, 그 '相似性' 지닌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
4. 나오며

## 1. 들어가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 문화산업, 문화원형, 문화테크놀로지, 문화콘텐츠 등의 용어들이 대두되어 사회전반과 대중들에게 다양한 방식과 형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한다는 확신과 실제적 경험 하에, 그 요체가 되는 문화콘텐츠의 창출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sup>1)</sup> 근래 인문학의 위기 운운으로 위축되어있던 인문학계는 현 시점에

\* 大眞大學校 中國學科 講師

1) 현재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는 문화콘텐츠 관련기관 및 단체는 상당수에 달한다. 관련기관으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아시아문

서 인문학적 원천과 사고, 축적물을 문화산업에 제공함으로써 소생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부단히 노력중이다.<sup>2)</sup>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용어인 문화원형이나 문화콘텐츠에 제공할 수 있는 인문학적 원천은 바로 스토리(story), 즉 이야기이다. 예로부터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미디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되어 왔고, 현재에도 새로운 형태의 매체와 결합되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인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그 역사와 특정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相似性'을 지닌 동일 유형의 스토리텔링이 시대, 민족,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해 왔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그 예로 샤를 페로(프랑스)의 <신데렐라(Cendrillon ou la petite pantoufle de verre)><sup>3)</sup>, 段成式(중국)의 <葉限><sup>4)</sup>, 작자미상(조선후기)의 <콩쥐팥쥐><sup>5)</sup>을 들 수 있다. 이 3종의 작품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이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은 다르지만 형상과 구조적 측면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相似性'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sup>6)</sup> 표상미디어인 문자로 스토리텔링이 진행된 작품에서의 이런 현상은 동서양 이야기를 세세히 비교해보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예전에는 표상미디어로만 표현되던 스토리텔링이 현대에는 다양한 기계와 전자매체와 결합하여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가 가장 대표적 경우이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소재는 창작적인 경우도 있으나

화산업교류재단 등이 있다. 관련학회 및 단체로는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문화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학회,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전국대학문화콘텐츠학과협의회, 한국지역문화콘텐츠네트워크 등이 있다. 《문화콘텐츠입문》, 인문콘텐츠학회, 북코리아, 2006참조.

- 2) 인문학계에서는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관련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소개, 출간하고 있다.
- 3) 프랑스의 샤를페로가 1697년 발표한 콩트집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 또는 콩트 : 부제 거위 아줌마의 콩트》에 실려 있다.
- 4) 唐 段成式의 《酉陽雜俎》에 수록되어 있다.
- 5) 작자미상, 정확한 연대미상의 작품이다.
- 6) <신데렐라>, <콩쥐팥쥐>, <葉限>의 相似性에 의한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 전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착한 소녀가 계모의 구박을 받는다 → 조력자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한다(요정 대모/검은소, 두꺼비, 선녀, 새메/비범한 물고기) → 조력자의 도움으로 예쁜 신을 신고 파티에 참석한다(유리구두/꽃신/금신) → 예쁜 신을 잃어버린다 → 이상적 배우자가 신을 매개로 소녀를 찾아 결혼한다 → 계모에 대한 징벌 혹은 화해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진다.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83  
신화나 전설, 민담, 역사 이야기를 흡수하여 재구성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相似性’을 지닌 동일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과거 중국의 소설과  
현대 한국의 TV드라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작품은 화본소설 〈金玉奴棒  
打薄情郎〉과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다. 宋代의 storyteller(說話人)에 의해 스토리  
텔링 되어 지고, 일시적인 스토리텔링이 영구성을 지향하여 話本이라는 텍스트로  
정형화된 후 문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활성화된 것이 話本小說이다 그리고 현대 대  
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 산물인 TV드라마는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여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 문자와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한 ‘相  
似性’에 기초한 동일 이야기 유형 스토리텔링 소개 및 비교는 다소 건강부회적 측  
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속성이 다른 매체를 통해 동일 유형의 스토리  
(story)가 어떻게 텔링(telling)되며 환골탈태하는지 살피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스토리텔링  
의 유형적 恒久性, 시대적 인물들의 정서와 세태를 엿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다.

## 2. 스토리텔링, 그리고 화본소설과 TV드라마

대상 작품소개와 분석에 앞서 익숙한 듯 하나 생경한 스토리텔링, 화본 내지  
화본소설, TV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는 구호처럼 현 문화시대에 스토리텔링의 역  
할과 비중은 상당히 높다. 과거의 단순한 이야기 소통, 이야기 전달의 일상적 행위  
를 넘어서서 스토리텔링의 범주가 확장되어 다양한 매체와 결합을 통해 문화산업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7)</sup> 게다가 영상과 인터넷, 계

7)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술개발

임, 애니메이션, 하이퍼텍스트 등의 매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담당할 과거의 스토리텔링(이야기 원형) 구축은 더욱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story+telling= storytelling, ‘이야기하기’이다.<sup>8)</sup>

이야기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형식을 지닌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이다. 바로 어떤 이야기를 특정 대상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의사소통 행위 인 것이다. ‘이야기하기’라는 스토리텔링의 일반적 의미 제시로 자칫 소설과의 연관성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범주를 넓혀보면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sup>9)</sup> 인간의 의사소통 매체는 고대의 그림과 문자, 음악, 무용, 언어에서부터 현대의 텍스트+그래픽+오디오+비주얼의 요소를 종합화한 매체 내지 하이퍼텍스트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그 원형, 인간의 정서를 반영한다. 그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전되어 스토리텔링이 시작된 것이다.

그 옛날, 라스코 동굴 벽화<sup>10)</sup>나 알타미라 동굴벽화, 여러 암각화에서 당시 인

---

의 방향이 콘텐츠 개발로 바뀌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이 탄생하고 있다. 롤프 엔센이 《드림소사이어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있는 스토리(story), 즉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가 오는 것이다. 스토리가 편집되어 스토리텔링이 될 때 상품이 되며, 거기에서 막대한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p.20.

8) 이야기를 이루는 이미지 혹은 이야기되어진 모든 대상을 넓은 의미의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 장르를 스토리텔링으로 국한하기도 한다. 후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9)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의사소통 미디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순수하게 구두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 문자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스토리텔링, 기계나 전자매체에 의해 소통되는 스토리텔링이 순차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선행하던 매체와 새로 출현한 매체가 혼용되기도 하며, 선행한 스토리텔링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한 이후에도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형식 양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새로운 스토리텔링 장르를 낳는다.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p.22.

10) 라스코 동굴은 우연히 발견되었다. …… 기원전 1만 5000년경에 아직 희귀한 생물에 속했던 인류는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에 매우 밀집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200기 가까운 동굴들 속에서 원시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이 동굴의 특이한 공기상태 덕분에 놀랄 만큼 많은 선사시대 벽화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 약 100미터나 되는 긴 라스코 동굴 안에는 1,500점 이상의 암각화와 약 600점에 달하는 사실적인 그림들, 특히 들소·사슴·소 그림들이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85  
 류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림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벽화가 스토리텔링의 매체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양소문  
 화, 하모도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의 유물과 유적 역시 당시 중국 인류의 삶을  
 현재의 우리에게 스토리텔링 하고 있다. 이처럼 그림과 기호, 구전 등을 통해 스토  
 리텔링 하던 방식이 문자의 등장으로 기록 중심의 방식으로 변신하게 된다. 중국  
 의 갑골문자와 한자, 이집트 문자가 그 예이다.

문자를 매체로 한 스토리텔링<sup>11)</sup>은 narrative에 의한 소설 장르가 가장 매력적  
 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신화, 전설, 민담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소설 형태를 갖추  
 게 되었다. 중국에서 소설의 범주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로 대별되며, 고전소설은  
 문체에 의해 다시 문언소설과 백화소설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백화소설의 출발  
 점은 宋代 화본으로 본다. 唐代에는 漢代부터 개척되기 시작한 실크로드가 활성화  
 되어 長安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부상하면서 외국과의 문화와 문명적 교류  
 가 이루어진다. 송대에는 당대에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  
 하고 도시경제가 크게 번영하게 된다. 그리고 송대의 도시는 인공적인 계획도시였  
 던 장안을 대표로 하는 당대의 폐쇄적 도시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생동감 있고  
 발달했다.<sup>12)</sup>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된 시민계급<sup>13)</sup>의  
 에너지가 충만되고 그들은 그들만의 '즐길거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

생생히 남아있었다. …… 학자들은 5,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동굴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그들은 계속 동굴 내부에 그림을 그려 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석기시대'의 '루브르 박물관'  
 은 창조되었던 것이다. 클라우스 라이홀트·베른하르트 그라프 지음, 임미오 옮김, 《세계를  
 움직인 그림들(Paintings that changed the world)》, 중앙M&B, 2003, p.8.

11) 문자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거의 구전과 구비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12) 북송(960-1127)의 수도 개봉(開封), 그리고 남송(1127-1279)의 수도 항주(杭州)는 이미 장안과  
 같은 정연한 계획도시가 아니었다. 도시의 사방은 여전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옛날  
 그 내부를 조각내 두었던 방성(坊城)은 이미 무너지고, 길가에 집들이 늘어서고 상점이 처마  
 를 잇대어 늘어서 있는 오늘의 도시와 똑같은 경관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세습  
 귀족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과거를 통해 자기 실력으로 발신한 사인(士人)계급과 그  
 밑바탕을 이루는 상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롭고 발달한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었다. 도시  
 경관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근세사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다른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사람들의 에너지는 성벽에서 길가로 넘쳐 나왔다.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  
 절, 2002, pp.49-50.

13) 현대적 의미의 '시민'과는 다른, 하나의 市, 도시에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

부응하여 자연스레 각종 民間技藝가 성행하게 된다. 당시 민간 기예는 瓦舍와 勾欄에서 연출되었고,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강창문학의 일종인 說話였다. 바로 설화는 'storytelling'이고, 이 설화를 연출하는 說話人은 'storyteller'인 것이다. 설화인, 이른바 storyteller는 당시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모습, 그들의 사상과 감정, 인기 있는 역사고사를 storytelling했다. 작은 북을 치며 storytelling하는 storyteller를 형상화한 漢代의 說唱陶俑들을 통해 당시의 storyteller였던 설화인의 storyteller로서의 자질과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都城紀勝》과 《夢梁錄》에 의하면 송대에 상당수의 설화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던 고사의 성격과 연출방식에 따라 說話四家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소설과 관련있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발생한 이야기나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 일명 銀字兒라 불리던 小說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講史이다. 설화인, 즉 storyteller들의 이야기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여 그 돌과구로 이야기의 대본(저본)인 話本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오락적 기대와 문인 혹은 지식인들의 관심으로 화본소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쇄' 기술의 출현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를 매체로 한 스토리텔링의 대량복제와 대량소비가 이루어진다. 최대 수혜자는 역시 다양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소설 장르였고, 시대상과 인간상을 반영하는 스토리텔링이 진행된다. 중국 역시 明代에 四大奇書를 위시하여 영웅소설, 역사소설, 풍자소설, 인정소설 등의 스토리텔링이 심도 있게 전개된다.

19, 20세기에 들어서 전화, 라디오, 영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문명의 등장은 스토리텔링에 변화를 초래한다. 문자를 통한 '이야기하기'방식이 문명적 매체와의 결합으로 '보여주기', '참여하기'식 방식을 병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난다. 스토리가 영화와 만났을 때, 영화의 영상성으로 인해 스토리는 단순히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형태까지 포함하는 중의성을 띄게 된다.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이 만났을 때, 애니메이션의 과장된 동선표현과 오락적 목적성으로 인해 스토리는 강약의 기복을 보이면서 제한된 혹은 의도된 주제 내에서 일정부분 통제된다. 스토리와 TV드라마가 만났을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87  
때, TV드라마의 통속성과 대중성, 유행성으로 인해 스토리는 패턴화 되고 한 마디  
로 '드라마틱' 하게 극단화 된다. 끝으로 스토리와 컴퓨터 게임이 만났을 때, 게임  
의 비선형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스토리는 결말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거나, 플  
레이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分枝를 거점으로 각기 다른 멀티엔딩을 맞게 된다.<sup>14)</sup>

19, 20, 21세기를 거치면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점차 대중적  
수요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랜 세월 대중적이고 매력적이  
었던 매체는 단연 TV이다. 특히 TV드라마의 인기와 매력은 대단하다. 21세기에  
들어서 출현한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현상 역시 TV 드라마에 의해 주도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드라마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어  
한류 열풍을 주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드라마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이야기의 축을 이루는 인간군상이 등장하여 사회  
를 반영하고 풍자하며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면서, 대중들의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를 도와준다. 소설처럼 문자를 통한 평면적 스토리텔링이 아닌 영상과 음악을 곁  
들인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자  
화상이 드라마를 통해 스토리텔링 되어 진다. 21세기 드라마의 트렌드는 순수한  
사랑과 불치병(〈가을동화〉,〈완전한 사랑〉,〈로즈마리〉,〈장밋빛인생〉등), 경제불  
황의 절망감과 극단적 야망(〈이브의 모든 것〉,〈진실〉,〈비밀〉,〈귀여운 여인〉 등),  
역사극 내지 퓨전 역사극(〈불멸의 이순신〉, 〈주몽〉,〈대장금〉,〈다모〉,〈태왕사신  
기〉,〈자명고〉등), 아줌마, 그리고 리얼리티와 욕망(〈아줌마〉,〈두번째 프로포  
즈〉,〈불량주부〉,〈돌아와요순애씨〉,〈내조의 여왕〉등), 착한드라마와 불륜드라마  
(〈부모님전상서〉,〈엄마가뿔났다〉,〈술약국집아들들〉,〈내 남자의 여자〉,〈아내의  
유혹〉등), 임금에서 의적까지, 정치에 대한 본질적 질문(〈한성별곡-정〉,〈이산〉,  
〈일지매〉,〈최강칠우〉,〈대왕세종〉등)<sup>15)</sup>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요즘에는 TV드라마에 '막장드라마'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전문가들이 우려의

14) 조은하·이대범 지음,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6, p.124.

15)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 나무, 2008참조. 제시된 드라마의 제목은 《한국  
인의 자화상 드라마》에서 언급된 것이며, 필자가 추가로 덧붙인 것도 있다.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는 드라마 뿐 아니라 TV프로그램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16)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현실적이며 풍자적 측면은 있으나 연이어 모방되는 자극적이고 폭력적 내용은 대중과 그들의 사회를 파괴할 괴력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이야기의 부재’, ‘이야기하기의 기술적 문제’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부재와 이야기 원천의 고갈로 스토리텔러(예를 들자면 방송작가)들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현실사회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과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내용과 영상들은 사회적 범죄와 폐악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런 현실에서 동양적 정서를 기초로 한 한국과 중국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찾아 지금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활용한다면 현 문화시대를 한층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처럼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역할은 중요하다.

### 3. 〈金玉奴棒打薄情郎〉과 〈아내의 유혹〉, 그 相似性 지닌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

〈金玉奴棒打薄情郎〉은 明代 馮夢龍이 편찬한 《三言》 중 《喻世明言》 第27卷에 수록되어 있는 화본소설이다.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으로 구성된 《三言》에는 송·원·명대의 단편화본소설이 정리와 윤색과정을 통해 수록되어 있으며, 풍몽룡 자신의 창작품도 들어있다.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3일에서 2009년 5월1일 까지 TV를 통해 방송된 SBS 일일드라마이다.<sup>17)</sup>

16) 이미 한국의 TV는 지난 수년간 오염의 언어를 쏟아내면서 ‘품격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TV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비속어는 점입가경 수준.……방송언어 관련 방통심의위 제재 건수는 2005년 4건에서 2006년 18건, 2007년 32건, 2008년 36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제는 언어오염에 더해 패륜적 내용이 드라마와 교양프로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드라마는 ‘막장’이라는 수식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2009. 5. 8. 월요일 판 A1면 〈저질사회 부추기는 TV [1] 불륜·패륜·백화점〉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89

두 작품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별개의 국가, 소설과 드라마라는 매체가 상이한 스토리텔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는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화본은 문자를 매체로, TV드라마는 영상을 매체로 스토리텔링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 속에 相似性에 의거한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다른 국가, 다른 민족, 시대적 차이에도 비슷한 이야기 흐름이 보이는 相似性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金玉奴棒打薄情郎〉은 본 이야기인 '正話'에 앞서 '入話'와 '得勝頭回'가 있어 드라마의 제작컨셉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한다. '입화'의 경우 詩詞로 시작되며 작품의 주제나 전편의 내용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이 부분은 스토리텔러(설화인)가 본격적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기 전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수단이기도 하다. '득승두회'는 '입화'와 '정화' 사이에서 '정화'와 유사하거나 상이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화'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金玉奴棒打薄情郎〉의 '입화' 부분을 살펴보자.

가지는 담 동쪽 꽃은 서쪽에 ,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되는데로 바람에 날리네.  
가지에 꽃이 없어도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꽃이 가지를 떠나면 다시 가지에 오르기 어려운 법.

이 네 구는 옛 사람이 지은 〈棄婦詞〉로,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것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 가지에 꽃이 없어도 봄이 오면 다시 피지만, 꽃이 가

17)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3일 부터 2009년 5월 1일 까지 SBS를 통해 방송했던 텔레비전 일일 드라마이다. 현모양처였던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장 무서운 요부가 되어 예전의 남편을 다시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복수극을 다루고 있다. 빠른 극 전개와 상황설정으로 30% 후반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누리꾼들이 뽑은 막장 드라마로 3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초기계약은 120회 분량이었으나 9회 연장하여 2009년 5월 1일 129회로 종영되었다. 4월 초 초기 제작사였던 스타맥스의 출연료 미지급등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여 외주제작사를 신영이앤씨로 바꾸었다. 종영 일주일 전에 결말이 유출되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재촬영 없이 그대로 방영을 하였다. 〈위키백과(다국어판 인터넷백과사전)〉

지를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상의 부인들에게 남편을 섬겨 도리를 다하고 동고동락하며 한평생 한 남편만을 섬겨야지, 부귀를 탐하고 가난을 싫어해서 딴 마음을 품어 스스로 후회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sup>18)</sup>

‘득승두회’ 역시 漢代의 명신 朱買臣의 아내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를 중시하여 남편을 버린 후 결국은 후회하는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는 ‘정화의’ 내용과는 상이하지만, 이러한 기법을 통해 ‘정화’를 더욱 부각시킨다.

〈아내의 유혹〉 제작 컨셉은 〈金玉奴棒打薄情郎〉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들게 한다.

여자들은 때론 꿈꾼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떻게 멋지게 살아볼까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던 만족하지 않던, 여자들은 누구나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꾸게 마련이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슴 한 켠에 남기고 살며, 그 대리만족을 위해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든다.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과 지금보다 나은 현실을 갈망하면서, 이런 여자들의 소망과 꿈을 담은 드라마를 써 보고 싶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선택한 결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자신을 철저히 모욕한 남편과 내연녀(친구)를 지독하게 복수하고 새로운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드라마를 간단히 요약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였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요부가 되는 이야기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서 예전의 남편을 다시 유혹해 자신의 남자로 뺏어오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남편과 간통을 하고, 남편의 가정을 철저히 파탄 내 버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배신과 음모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여자가 팜므파탈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다.<sup>19)</sup>

18) 枝在牆東花在西, 自從落地任風吹. 枝無花時還再發, 花若離枝難上枝. 這四句, 乃昔人所作〈棄婦詞〉, 言婦人之隨夫, 如花之附于枝: 枝若無花, 逢春再發; 花若離枝, 不可復合. 勸世上婦人, 事夫盡道, 同甘同苦, 從一而終: 休得慕富嫌貧, 兩意三心, 自貽後悔. 〈金玉奴棒打薄情郎〉

19) 〈아내의 유혹〉 홈페이지: <http://tv.sbs.co.kr/temptation/>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91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선택한 결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자신을 철저하게 모욕한 남편과 내연녀(친구)를 지독하게 복수하고 새로운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라는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金玉奴棒打薄情郎〉과의 동일 스토리텔링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두 작품이 완전히 닮은꼴의 스토리텔링은 아니다. 화본소설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등장인물과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드라마는 영상이라는 매체와의 조우, 복잡한 인물간의 관계, 드라마의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장면과 내용들이 제공되고, 뜬금없는 개연성 없는 사건의 도입 등으로 복잡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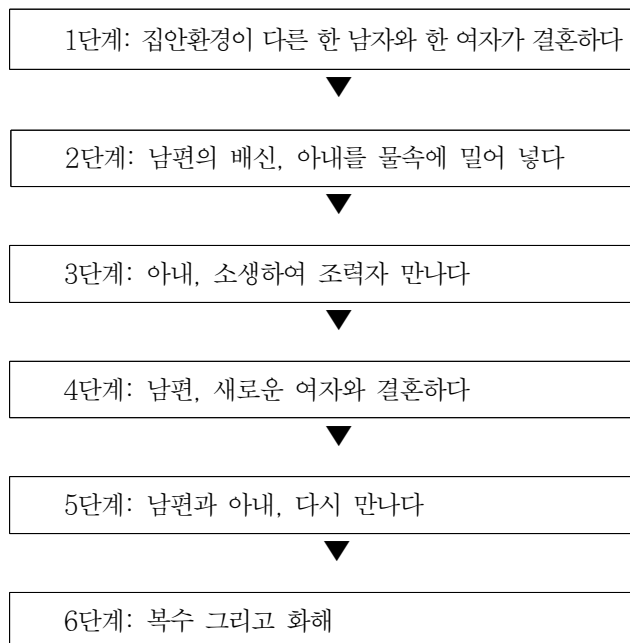
우선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金玉奴棒打薄情郎〉	〈아내의 유혹〉
장르	화본소설	TV드라마
매체	문자	영상
주요 등장인물	<p>金玉奴: 빈한한 莫稽와 결혼하여 남편의 출세를 위해 몰심양면으로 지원하나 결국 배신당한다.</p> <p>莫稽: 金玉奴의 지원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나 출세를 위해 출신이 천한 아내를 몰속에 빠뜨린다.</p> <p>金老大: 金玉奴의 아버지로, 거지우두머리인 團頭 생활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p> <p>許德厚부부: 金玉奴의 양부모로 金玉奴와 莫稽의 해후를 돕는다.</p>	<p>구은재: 남편과 친구의 배신으로 죽을고비를 넘긴 후 복수의 화신이 된다.</p> <p>정교빈: 아내 은재를 배신하고 애리와 불륜을 저지른다. 아내를 바닷물에 끌고 들어가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간다.</p> <p>신애리: 교빈을 유혹해 은재에게 큰 상처를 안기는 은재와 함께 자란 친구이다.</p> <p>민건우: 민현주의 양아들로 은재의 새로운 사랑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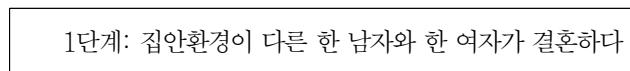
		<p>민여사: 토탈뷰티샵 사장으로 은재의 양엄마이다. 교빈의 부친 정회장에게 사기와 배신을 당했기에 은재의 경우처럼 복수를 결심한다.</p>
<p>줄거리</p>	<p>金老대는 거지왕초인 단두생활로 부를 축적하나 천한 신분으로 콤플렉스가 있다. 그는 딸 玉奴를 빈한하지만 전도유망한 莫稽와 결혼시킨다. 결국 莫稽는 玉奴의 헌신적 지원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된다. 그는 배를 타고 부임지로 가던 중 처갓집의 천한 지위가 그의 앞길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아내를 물속에 빠뜨린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玉奴는 許德厚부부의 양녀가 되는데, 許公은 바로 莫稽의 상사였다. 玉奴의 곡절을 알게 된 許公부부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한다. 결혼 상대가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玉奴는 하녀들을 시켜 신방에 들어오는 莫稽에게 몽둥이찜질을 하도록 하여 배신에 대한 가벼운 복수를 한다. 전후사정을 알게 된 莫稽는 玉奴의 질책을 받고 용서를 구한다.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산다.</p>	<p>가난한 집 딸인 은재는 남편 교빈과 시댁식구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헌신적 희생을 한다. 그러나 남편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자매와도 같은 애리와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된다. 천성적으로 착한 은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결국 교빈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충족과 애리의 충동질로 은재를 죽이려고 바닷물에 빠뜨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은재는 민여사를 만나 그녀의 딸로 살아간다. 착한 여자 은재는 교빈과 애리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새로운 삶을 지탱한다. 교빈은 전처인 은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의 계략에 빠지며, 집안도 풍비박산난다. 교빈에게 이 혼당한 애리는 은재의 정체를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은재를 과멸시키려 한다. 그럴수록 애리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은재는 복수에 성공하나 암에 걸린 애리를 보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려 한다. 애리와 교빈은 은재가 빠졌었던 그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게되며 은재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p>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93  
위의 줄거리를 통해 두 작품의 相似性和 스토리텔링의 동일 유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金玉奴棒打薄情郎〉과 〈아내의 유혹〉에 드러난 동일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도식화해보면 이렇하다.



이야기의 相似性을 바탕으로 〈金玉奴棒打薄情郎〉과 〈아내의 유혹〉은 6단계의 스토리텔링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별로 동일 유형의 스토리(story)가 어떻게 텔링(telling)되며 환골탈태하는지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자.



〈金玉奴棒打薄情郎〉→출신은 미천하나 부유한 金玉奴와 진도유망하나 가난한 莫稽가 결혼한다. 玉奴는 남편에게 아낌없는 외조를 한다.(부유한 여자와 가난

한 남자의 만남)

〈아내의 유혹〉→천지건설회사의 철 없는 아들 교빈과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은재가 결혼한다. 교빈은 은재를 무례하게 대하나 은재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한다.(가난한 여자와 부유한 남자의 만남)

2단계: 남편의 배신, 아내를 물속에 밀어 넣다

〈金玉奴棒打薄情郎〉→관리가 되어 부임지로 떠나던 莫稽는 출세를 위해 玉奴를 물에 밀어 넣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다.(출세를 위한 단독범행)

〈아내의 유혹〉→교빈은 은재의 친구 애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릇된 욕망충족을 은재를 바다로 밀어 넣는다.(불륜의 욕망충족 위한 범행공모)

3단계: 아내, 소생하여 조력자 만나다

〈金玉奴棒打薄情郎〉→玉奴는 소생하여 許公부부를 만나 사연을 말하고 그들의 양녀가 되어 보살핌을 받는다. (여자, 조력자와의 첫 대면에 자신의 처지 토로. 조력자는 적대자의 상사)

〈아내의 유혹〉→살아 난 은재는 사라진 민여사의 친딸을 대신하여 그녀의 딸이 된다. 전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배신한 교빈과 애리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여자,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 숨기지만 결국 진실을 토로. 여자와 조력자의 적대자는 동일한 집안)

4단계: 남편,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다

〈金玉奴棒打薄情郎〉→許公은 의도적으로 莫稽에게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제안한다. 莫稽는 출세의 기회로 여기고 쾌히 제안을 받아들인다.(적대자인 남자의

새 아내는 바로 전처)

〈아내의 유혹〉→은재가 죽었다고 여긴 교빈과 애리는 결혼한다.(적대자인 남자의 새 아내는 아내의 친구)

5단계: 남편과 아내, 다시 만나다

〈金玉奴棒打薄情郎〉→玉奴는 처음에는 수절한다고 결혼을 거절하나, 상대가 莫稽인 것을 알고 결혼을 결심한다. 결혼식을 끝내고 내막을 알 리 없는 莫稽는 신부의 방으로 향한다.(여자는 새 남편의 정체를 알지만, 남자는 새 아내의 정체를 모른다)

〈아내의 유혹〉→교빈은 완전 변신에 성공한 은재를 몰라보지만, 애리는 은재의 정체를 알아챈다.(여자는 의도적 접근을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정체를 모른다)

6단계: 복수 그리고 화해

〈金玉奴棒打薄情郎〉→신방에 들어서는 莫稽에게 玉奴는 몽둥이 찜질과 침을 뱉는 것으로 복수를 한다. 한바탕 莫稽를 질책한 후 許公부부의 중재로 화해한다.(가벼운 복수와 조력자의 중재, 그리고 화해)

〈아내의 유혹〉→이 부분에서 은재의 복수와 민여사의 복수가 병행된다. 은재는 교빈을 유혹하여 파멸시키고, 민여사 역시 과거의 배신남 교빈의 부친에게 복수를 한다. 이혼 당한 애리는 은재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은재와 애리의 치열한 갈등구조가 전개되나, 애리가 위암에 걸리자 은재는 화해를 시도한다. 결국 애리와 교빈의 죽음으로 은재는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여자의 적대자에 대한 유혹과 복수, 적대자들의 죽음으로 화해와 용서)

이처럼 〈金玉奴棒打薄情郎〉과 〈아내의 유혹〉에서는 비슷한 내용과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내의 유혹〉은 영상매체와 결합되어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생동감 있으면서 자극적으로, 그리고 복잡다단하게 그려내면서 현대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준다. 두 작품은 동일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서 과거의 출세지향주의자와 현대의 아내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공허한 정신의 소유자를 통해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표출하는 점에서도 동일성을 드러낸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욕망에의 집착을 보여주는 두 작품의 공통 주제는 ‘배신과 복수’이며, 주제의 발현은 등장인물의 선악구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내의 유혹〉의 선악구도가 〈金玉奴棒打薄情郎〉보다 선명하고 강렬하다.<sup>20)</sup> 일반적으로 선악구도는 고전소설에 전용되었고, 극도의 선악구분은 비현실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채용되고 있다.

#### 4. 나오며

說話는 宋代에 스토리텔러(설화인)에 의해 스토리텔링 되어지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화본과 화본소설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TV드라마는 영상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사회상을 그려나가며 대중의 이목을 매료시켰다. 화본소설과 TV드라마의 생명은 이야기이고, 이는 당시 인성과 사회를 반영한다.

20) 선명한 선악구도란, 수용자들의 단순한 세계인식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극단적 경쟁과 무조건적 승리에 대한 강박증과 피해의식의 괴로움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보수적 한계와 수용자 자신의 순진한 윤리성을 크게 뒤흔들지 않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편한 형상화 방법이 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말하자면 수용자는 현실이 드라마 속의 세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선악인물형의 극명한 이분화가 현실과 맞지 않는 단순한 형상화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욕구·욕망을 강렬하게 만족하고 자극하면서 윤리적 안정감을 갖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수용자 대중들은 현실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못지않은 비윤리적 경쟁을 경험하고 있고, 양자의 욕망을 다 지니고 있다.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 나무, 2008, p.53.



화본소설〈金玉奴棒打薄情郎〉과 TV드라마〈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97

최근 '막장드라마'라는 용어가 여러 매체에 오르내리고 대중들은 그런 류의 드라마에 비난을 가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관심을 드러내며 TV앞에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막장드라마'라는 용어 출현의 최대 공헌작이자 수혜작은 바로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다. 이 드라마가 불명예스런 수식에도 불구하고 인기몰이에 성공하자 후속 모방작들이 더욱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을 내세워 이야기 부재로 인한 요즘 드라마의 수준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 〈아내의 유혹〉이 보여주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정상적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등장인물들의 성격, 개연성 없는 내용의 등장,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상당했다.<sup>21)</sup>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본 논문에서는 화본소설 〈金玉奴棒打薄情郎〉과의 相似性에 의거한 동일 유형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추었다. 相似性에 의한 동일 유형의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유사한 사고체계와 정서의 발현물이다. 구체적으로 혹은

21)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선정성과 자극성으로 인해 연일 비판을 받으며 조기종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SBS 일일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촬영이 23일 모두 끝난다.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일부 매체에선 사랑과 화해로 결말이 난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순옥 작가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말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다고 밝혔다.

5월 1일 129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마지막회 엔딩신 촬영이 강원 속초 앞바다에서 모두 끝난 직후 궁금증을 유발하던 결말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일 첫 회를 시작해 22일 122회를 방송까지 충격적인 사건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건 전개, 황당무계한 캐릭터의 성격과 변화로 일관한 '아내의 유혹'결말도 가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김순옥 작가가 말한 결말에서의 극적인 반전이란 바로 극중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위압에 걸린 애리(김서형)가 자신의 악행을 속죄하며 남편 교빈(변우민)이 아내 은재(장서희)를 죽이려했던 바다에 자살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교빈(변우민)마저 죽음을 맞게 되는 가히 충격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결말을 맺게 됐다. 물론 자살한 애리와 죽은 교빈을 은재가 용서하는 장면이 엔딩 장면이다. '아내의 유혹'은 방송초반 일일 드라마라고 보기 힘들었던 군더더기 없는 전개와 악역에 대한 새로운 인물창출, 악역에 대한 색다른 복수구조 등으로 시청자와 전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드라마가 중반을 접어들면서 개연성 없는 사건 도입,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의 돌변, 눈길만을 끌기위한 자극성과 폭력성, 선정성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막장 드라마'의 폐악을 보여주며 시청자의 조기 종영요구가 잇따랐다. 중반을 넘어서며 네티티브와 스토리는 상실한채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과 인물의 행태로 드라마를 이끌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결말마저 자살이라는 극단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으로 꾸며 '아내의 유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자살처리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마이테일리〉, 2009. 4. 23.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논리적으로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없어도 인간의 유사한 감정체계가 동일유형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화본소설과 TV드라마는 상이한 매체와의 결합으로 동일 유형 스토리텔링 과정 중 당연히 차이점을 드러낸다. 화본에서는 문자를 통해 단순하고 평면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 TV드라마는 변화무쌍한 이야기, 복잡다단한 등장인물, 연이은 반전 등으로 공감각적 자극을 주며 대중의 감정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스토리텔링을 전개한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중국과 한국이라는 경계를 초월하여人性과 욕망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자화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보여 준다.

다양한 장르의 소설과 TV드라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존재하고, 대중(독자, 시청자)에게 인간상과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의 유사한 감정체계가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 되어졌는가를 살펴보고, 相似性에 바탕을 둔 동일 유형의 스토리텔링 자료의 구축 작업은 현 문화산업시대에 문화원형을 위시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馮夢龍, 《喻世明言》,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4.  
 (宋)孟元老等著, 《東京夢華錄》(外四種), 文化藝術出版社, 1998.  
 蕭相愷, 《宋元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중국소설연구회,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고방, 1994.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홈페이지: <http://tv.sbs.co.kr/temptation/>.  
 <아내의 유혹> 관련기사, 마이데일리 2009. 4. 23,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아내의 유혹>, 위키백과(다국어판인터넷백과사전).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 2002.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 나무, 2008.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화본소설 <金玉奴棒打薄情郎> 과 TV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의 '相似性'을 중심으로 299  
조은하·이대범 지음, 《스토리텔링》, 북스힐, 2006.  
클라우스 라이홀트·베른하르트 그라프 지음, 임미오 옮김, 《세계를 움직인 그림들  
(Paintings that changed the world)》, 중앙M&B, 2003.  
<저질사회 부추기는 TV [1] 불륜·패륜·백화점>, 조선일보 2009. 5. 18. 월요일 판 A1면.

### 〈中文提要〉

到了21世紀,興起了文化、文化產業、文化原型、文化技術、文化contents等用語.對於文化原型、文化contents,能提供的人文學來源就是'故事(story)'.自古以來,故事用各樣各色的媒體被演出了.到了現在,跟新媒體組合的很多種故事登場了.'說故事(storytelling)'的歷史,在世界各國多種多樣地演變了.看一看有些故事,我們可以發現了超過時代、民族、國境的有着相似性的同一類型'說故事'方式.本論文,通過中國宋代的話本小說<金玉奴棒打薄情郎>和韓國電視連續劇<愛人的誘惑>研究了有着相似性的同一類型'說故事'當然,話本小說和電視連續劇'說故事'的過程中因互不相同的媒體顯露了差別.可是,超越中國跟韓國的交界刻畫了以人性、慾望爲主的當時社會的肖像,各種小說和電視連續劇通過'說故事'存在着,給大眾提供了人間群像、社會相.

**關鍵詞** : 話本, TV, Drama, story, storytelling, storyteller, 相似性, 同一類型, 文化, 媒體, 文字, 映像

이 논문은 2009년 5월 06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